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5.31.(화) 석간 2022.5.31.(화) 06:00	배포 일시	2022. 5. 30.(월) 오후
담당 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6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가자미와 농어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충남 보령 무창포 마을과 강원 삼척 장호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빨제비갈매기를, ④등대로 전북 군산 어청도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나로도 어업인의 생활자료를,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구들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가자미, 농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6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가자미와 농어를 선정했다.

가자미는 전 세계에 10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참가자미, 기름가자미 등 3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많고 맛도 좋아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이다.

가자미는 계절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생선이지만, 지금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다. 가자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셀레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준다.

제철을 맞은 가자미는 뼈가 억세지 않아 뼈째 썰어 회로 먹거나 쯔쯔와 엿기름을 넣어 발효시킨 식해(食醃)로 먹으면 그 맛이 별미다. 그밖에도 가자미를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조림이나 구이로 먹어도 좋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인 농어는 나고 자람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출세어(出世語)로 유명하다. 어린 농어는 ‘보로어’, ‘걸덕어’, ‘까지매기’등으로 불리고, 민물에서 살다가 겨울 바다로 처음 나간 농어 새끼는 ‘꼴데기’로 불린다. 이를 경상도에서는 ‘농에’, ‘깡다구’로, 전라도에서는 ‘갈대기’로 부르기도 한다. 서해안에서는 간혹 80cm가 넘는 농어가 잡히기도 하는데 이를 ‘따오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름철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농어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체력증진에 좋고, 니아신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농어는 살이 찰지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있어 회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며, 갓 잡은 것을 바로 먹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숙성해서 먹으면 감칠맛이 더해져 농어의 제맛을 즐길 수 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여름 대표 보양식인 농어와 가자미로 원기를 보충하여 올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충남 보령 무창포마을, 강원 삼척 장호마을



무창포마을 전경

장호마을 전경

해양수산부는 여름의 초입에 떠나기 좋은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마을과 강원도 삼척시 장호마을을 6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선정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무창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산물 시장, 어항, 해수욕장을 두루 갖춘 복합적인 체험휴양지로 다양한 수산물과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노을이 유명하다. 무창포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시장에서는 갯 잡은 활어회와 매운탕 등 입을 즐겁게 해줄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서해의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보령 8경의 하나인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으며, 인근에 있는 죽도 상화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여유를 느끼며 쉬어가기 좋다.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장호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여행객을 끌어당기는 여행지이다. 아름다운 항구와 기암절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둔대암 산책로에서는 장호항의 에메랄드빛 해변을 한눈에 담으며 거닐 수 있다. 마을에서는 해상케이블카, 투명카누, 스킨스쿠버 등 깨끗한 바닷물을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해상케이블카는 내부가 투명 유리로 되어있어 바다 위를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을 즐긴 후에는 특산물인 돌미역과 문어는 물론, 새콤달콤한 육수와 쫄득한 생선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물회도 맛 볼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보령 무창포마을과 삼척 장호마을은 이미 유명한 국내 여행지로 성장한 어촌마을”이라며 “맛과 멋이 있는 두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국민들이 즐거운 추억 쌓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뿔제비갈매기



6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서해 육산도 지역에서 번식하는 ‘뿔제비갈매기(학명 : *Thalasseus bernsteini*)’를 선정하였다.

도요목 갈매기과에 속하는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체만 생존하고 있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일반적인 갈매기보다 날렵한 생김새와 빨처럼 솟은 검은머리가 특징이며, 이동경로, 먹이 등 생태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 ‘신비의 새’라고도 불린다.

뿔제비갈매기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 이후 대만과 중국에서 일부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최초로 서식이 확인된 후 소수의 개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4월에서 5월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산란하여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갯가갈매기와의 경쟁으로 개체 수 증가에 어려움이 있고, 번식영역 확보를 위한 서식지 보호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뿔제비갈매기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개체만 남아있어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생물이다. 뿔제비갈매기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④ 이달의 등대 -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등대



해양수산부는 6월의 등대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어청도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12초마다 한 번씩 흰색 불빛을 깜빡이며 서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어청도는 군산에서 북서쪽으로 72km 떨어진 전라북도 가장 서쪽의 섬이며, 서해 중부 어장을 이용하는 어선의 기항지이자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청도 등대’는 어청항과 군산항을 드나들거나 서해안 남북항로를 오가는 선박에게 안전한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어청도 등대는 1912년 3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으며, 원형 콘크리트 구조의 백색 등탑과 등대 맨 윗부분인 등롱의 빨간색이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등대 내부에는 원형 철제 계단과 접이식 철제 바닥판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등 역사·문화·건축적 가치가 높아 2008년 7월 1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되었다.

어청도는 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무성한 소나무 숲과 한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동백나무 숲이 어우러진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에 자주 등장한다. 4개의 코스로 구성된 ‘어청도 구불길’을 걸은 후, 어청도 등대에서 일몰을 본 방문객들은 이 섬의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 또한 주변 바다에서는 우럭, 돌돔, 참돔, 감성돔, 방어, 농어, 놀래기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있어, 어청도를 방문하면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고, 지난 5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항 역무선 방파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 어민의 생활자료



1950 ~ 1990년대 | 22.5×30.5×4.5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김선우·김민우 기증

6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김선우씨와 김민우씨가 기증한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 어민의 생활자료 25건, 74점을 선정하였다.

이 자료들은 기증자의 증조부와 조부가 남긴 생활자료로 금전출납부, 결혼식 기부방명록, 선박매매계약서, 작업일지, 각종 어업·농업기술 관련 자료, 자녀들과 주고받은 편지, 저울과 추, 주판 등 1950~1990년대 우리 어민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금전출납부는 집안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입란에는 상어, 낙지, 오징어 등 수산물과 마늘, 유자 등 농산물을 판매한 기록이, 지출란에는 고무신, 약 등 일상생활 용품을 구매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 당시 어민들의 생활상과 물가 등을 엿볼 수 있다.

김선우씨와 김민우씨가 기증한 유물들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2층 해운항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생활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자료들을 비롯한 선원, 어민,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일기, 도서, 사진, 어업·항해도구 등 일상생활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기증받은 주요 유물을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지질 현상 실물 전시관, 구들도



해양수산부는 6월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준보전 무인도인 구들도를 선정하였다.

푸른 하늘빛을 빨아들인 것처럼 검도록 질푸른 수면 위로 갈색 띠 바위섬이 우뚝 솟아나 마치 육중한 군함이나 컨테이너를 가득 얻은 화물선 처럼 보이는 구들도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 선착장에서 남동 방향으로 약 15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하얀 등탑이 특징인 구들도는 해발고도 40m, 면적 약 5,314㎡로 중생대 백악기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홉 개의 낮은 바위 봉우리가 있어 구들서

(九突嶼)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암석이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주상절리(柱狀節理)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무인도서이기도 하다.

구들도는 화산 폭발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4~6각형 결정을 이뤄 생겨났고, 파도와 비바람에 쓸리고 깎이면서 떨어져 나간 자리는 0.5~1m 폭으로 오래된 구들장처럼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파식대(波蝕臺)*와 타포니(tafoni)**가 잘 발달되어 지질 현상의 전시 학습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암석해안에서 기반암이 파랑의 침식작용에 의해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로 평탄하게 나타나는 지형

** 암벽이 물리적·화학적 풍화작용을 겪은 결과 벌집처럼 생긴 구멍형태가 생긴 지형

그 외에도 섬에서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를 볼 수 있고, 해국과 다정큼나무, 갯까치수염, 돌가시나무, 밀사초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구들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최종욱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서기관	김정식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실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참고 1 수산물 성분 분석 정보

6월
이달의 수산물

가자미류 (참가자미)

Flatfishes (a right-eyed flounder)



출처 : 셔터스톡(Shutterstock)

가자미는 가자미목에 속하는 물고기의 총칭이다. 가자미는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한자어로 비목어(比目魚), 첩(鰈), 가어(加魚) 접어(鰈魚)라고 부른다. 가자미 방언으로 가제미, 까제미, 가지미, 납새미 등으로도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넘으며 우리나라에는 물가자미, 호수가자미를 포함해 30여 종이 있다. 가자미류에는 여타 생선과 다르게 불포화지방산이 매우 풍부하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중 콜레스테롤 비율을 조절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 또 고단백, 저지방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셀레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체조직의 노화 방지와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85 kcal	78.6 g	0.2 g	19.4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4 g	21 mg	250 mg	0.5 mg

셀레늄	류신	라이신	아르기닌
(selenium)	(leucine)	(lysine)	(Arginine)
9.3 mg	1,498mg	1,601 mg	1,522 mg

20220601

해양수산부

6월
이달의 수산물

농어

Sea bass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농어는 나고 자람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출세어로 유명하다. 농어는 '6월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여름에 많이 잡히는 농어는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아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꼽힌다. 또한 비타민 A와 B, 인, 철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칼슘 함량이 높다. 칼슘이 풍부해 골격 형성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니아신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 또 농어는 살이 차지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숨어 있기 때문에 회로 먹는 편이다. 특히 갓 잡아먹는 것보다는 약간 숙성을 해서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한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96 kcal	78.5 g	1.9 g	18.2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2 g	58 mg	196 mg	1.5 mg

비타민 A	니아신	EPA	DHA
(Retinol)	(Niacin)	(Eicosapentaenoic acid)	(Docosa hexaenoic acid)
36 µg	3.1 mg	362 mg	581 mg

20220601

참고 2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6월 이달의 수산물

여름 보약같은 수산물
가자미류, 농어
더 알고 싶어?



가자미류

'가자미 놀던 뽕 맛이 도미 맛보다 좋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생선!
전세계적으로 망둑어류 다음으로 종이 많은 가자미는 회무침, 찜, 구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만능 생선!

농어

여름 농어는 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 여름을 대표하는 생선.
단백질 함량이 높고, 크면 클수록 맛이 좋은 여름철 으뜸 보양식, 농어!

어식백세
100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참고 3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포스터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2022년 06월



아름다운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마을은 해 질 무렵 낙조로 붉게 타들어 가는 바다로 유명하다. 또한, 해변관광열차체험, 선상낚시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된 복합적인 체험휴양지다. 무창포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시장에서는 광어, 우럭 등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입안을 즐겁게 만들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체험: 해변관광열차체험, 선상낚시
먹거리: 광어, 우럭
주변 관광지: 무창포 수산물시장, 무창포 해수욕장, 죽도 삼화원
☎ 충청남도 보령시 용현로 100번지 28 ☎ 010-7936-3510 <http://무창포어촌체험마을.kr>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색 체험이 가득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강원도 삼척시)

장호마을은 아름다운 항구와 기암절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장호항의 예메랄드빛 해변을 한눈에 담으며 거닐 수 있다. 마을에서는 케이블카, 투영카누, 스킨스쿠버 등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깨끗한 바다를 즐긴 후에는 특산물인 돌미역과 문어는 물론, 새콤달콤한 육수와 쫄면의 생선살이 조화로운 물회를 맛보는 건 어떨까?

체험: 선상낚시체험, 투영카누생태체험, 스킨스쿠버 등
먹거리: 돌미역, 문어
주변 관광지: 삼척 해상 케이블카, 해산당 공원, 용화 해수욕장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 010-7709-8954 <http://삼척장호어촌체험마을.kr>

내셔널 지오그래픽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보다나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FIPA 한국어촌어항재단

2022. 06
www.mak.go.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보다나온 해양수산부

물지름 큰 국제적 멸종위기종

도요목 갈매기라 불리는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체만 생존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서도 육산도의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번식하고 있다. 뿔처럼 솟은 검은머리가 특징이며, 이동경로, 먹이원 등 생태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 신비의 새라고도 불린다. 2016년 국내 번식이 확인된 이후 소수의 개체가 매년 도래하고 있다. 뿔제비갈매기와 경쟁 등으로 개체수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가치가 높아 지난 2021년 12월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다. 뿔제비갈매기를 허가 없이 포획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뿔제비갈매기는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하얀색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부리 끝부터 머리끝까지 검은색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는 4월에 5월에 산란을 시작하며, 단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에서도 약간 섬에만 번식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뿔제비갈매기

Thalasseus bernsteini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06월
이달의 등대

보다나온 해양수산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 나라

선박 안전 책임지는 늘 푸른 섬의
어청도등대

어청도등대

전라북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어청도는 군산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73km, 중국의 선운산반도는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의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 역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열해기전 기점 중 하나이다. 어청도는 뿔 갈매기와 갈매가 어청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어청도 북서쪽에 위치한 어청도등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진을 아랑을 품은 일본의 목적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 후 군산항과 우리나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통행하는 모든 선박이 이용하는 중요한 등대가 되었으며, 서해안에서 제일 먼저 전파를 이용한 무선표지를 설치 운영했던 등대이다. 어청도등대는 어청도 서쪽 끝 60m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으며, 12초에 한 번 불빛을 반짝여 서해안을 지키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섬 끝자락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등대의 모습은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로 손꼽히기 충분하다. 특히 일출 무렵 시간각각 변화하는 하늘빛과 해송, 하얀 등대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매우 아름답다. 어청도등대 등탑 입구의 삼각형 페디멘트를 밟고 있는 기둥은 하부로 갈수록 기울어져 세련된 안정감을 보인다. 건축 당시 동양의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 상부를 전통 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재구성하여 출세 등종과 하얀 등탑 그리고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돌담이 어우러져 보존 가치가 높다.

주변 관광지

- 치동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4호)
- 군산시진여행마을
- 진포해광굴전
- 봉수대(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9호)
- 군대역사박물관
- 어청도등대박물관

주변 먹거리·해산물 팔방

항구도시 군산은 항복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중국집이 맛을 뽐내고 있다. 군산 항복은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건너온 회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온다. 이후 80여 년간 해산물이 풍부한 바닷가라는 환경적 요소와 전라도 손맛이 더해져 한국 군산만의 맛으로 토착화 했다. 군산의 유명한 중국집들은 대부분 배달도 하지 않고, 영업 시간도 짧다. 군산을 방문 한다면 항복거리에서 매일 공수하는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시원하고 일품인 항복을 맛볼 수 있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2.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트형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트 1건, 우수 포스트를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텝 투어

2022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2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만뷰까지 스텝을 채운 참여자와 스텝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2019~2022 시리즈도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텝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6월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 어민의 생활자료



1950~1990년대 | 22.5×30.5×4.5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김선우·김민우 기증

이달의 해양유물로 김선우·김민우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에서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며 살았던 어민의 생활자료를 선정하였다.

기증자는 종조부와 조부가 남긴 생활자료 25건 74점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기증유물들은 금전출납부, 결혼식 기부방명록, 선박매매계약서, 작업일지, 각종 어업·농업기술 관련 자료, 자녀들과 주고받은 편지, 저울과 추, 주판 등 1950~1990년대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중 금전출납부는 기증자의 종조부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집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기록자료이다. 수입란에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이 적혀있고, 지출란에는 고무신, 비누, 성냥, 담배, 약 등의 일상용품의 구입 내용이 적혀있어 지금과 다른 당시의 생활상과 물가 등을 살필 수 있다. 기증유물 중에는 종조부의 1953년 육군헌병학교 22기 졸업기념 앨범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생활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해양 자료를 기증받는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예문·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해양수산부

바다나눔

해양수산부

다시, 건강한 바다

새로운 국민의 바다

영도지 식탁,
생태에 관한 이야기

무인도서

2022년 06월
이달의 무인도서

지질 현상 실물 전시관, 구들도

